

민주노총 최초 비정규직 중심 대규모 파업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 참여...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촉구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아래 만원행동)이 6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오늘 사회적 총파업의 주인공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노동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유령 취급당한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주인임을 선포하고 총파업에 나섰다”고 선언



했다.

표명순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합원은 투쟁사에서 “민주당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학교의 유령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총파업에 나선 우리에게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한다”며 “후배들에게 가만히 기다리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대통령이 ‘노동존

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존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다. 내 노동 조건은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모였다”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은 본 대회를 마친 뒤 종로 3가까지 행진해 정리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 주간(6월28일~7월8일) 동안 ‘금속노조 사회적 교섭 촉구 결의대회’, ‘김종중 열사투쟁 승리, 고용안정 쟁취 집중투쟁’, ‘돌봄노동자대회’, ‘화물노동자투쟁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총파업 투쟁을 이어간다.

“삼성과 우리 삶, ‘새로고침’ 하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6.30총파업 사전대회...6월13일부터 원청 직접교섭 촉구 무기한 파업 중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라두식, 아래 지회)가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 사전대회로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잔 합시다’를 열었다.

라두식 지회장은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투쟁으로 삼성과 대한민국, 우리 삶을 ‘새로고침’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사전대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여는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에 사회적 대화 다시 제안

7월6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 토론회, 7일 대표자 공식면담 등 추가 제안

현대자동차그룹을 향한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과 사회 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29일 현대자동차그룹에게 사회 대화를 다시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 오는 7월6일 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와 7월7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과 공식면담 참가를 추가로 제안했다.

노조는 7월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 사용자단체, 노조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방안 사회 대토론회’를 현대자동차그룹에게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7월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면담을 열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재벌기업 노사의 사회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통상임금 임금채권분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터무니없다며 간접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노조 제안은 노사합의로 임금채권 규모를 정해 사회 연

대를 위한 기금 조성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통상임금 소송 임금’은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왜곡에 대해 노조는 “이미 현대기아차그룹사 소속 열세 곳 소송 사업장 가운데 노측 승소가 세 곳, 사측

승소가 세 곳, 노측 일부 승소가 한 곳, 미판결 여섯 곳”이라고 반박하며 사회 낭비를 초래하는 소송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6월20일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발레오만도지회, 7년 만에 부당해고 최종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부당해고 판결 확정...지회 “재징계 없는 원직복직 요구할 계획”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6월29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월3일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 명분이 퇴색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한 점 ▲발레오만도가

지회의 거둬들인 단체교섭, 관계 개선 촉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지회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규업 지회장은 “전원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지회는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후 대응을 논의하고, 회사에 재징계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 RG발급 확대받았습니다”

28일 노조, 중형조선소 살리기 조선노동자대회 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가 투쟁으로 RG발급을 쟁취했다. 이로써 1월부터 상경투쟁을 벌이며 네 달 넘게 휴업상태에서 투쟁을 전개한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장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금속노조가 6월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연 ‘RG발급 요건완화, 구조조정 강요 채권단 규탄 조선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수출입은행이 면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RG를 발급하기로 최종 확대했다. 이제 수주한 배를 만들 수 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힘과 강고한 투쟁으로 이런 결과를 쟁취했다”고 보고해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장기성 지회장은 “강제성 없고 쟁의권에 문제없는 노사화약서를 내



일 현장에서 정리해 제출한다. 수출입은행 앞 농성장도 정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6월28일 청와대 앞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각각 ‘중형조선소 살리기 희생방안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와 ‘RG발급 요건완화, 구조조정 강요 채권단 규탄 조선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이름을 달고 ‘중형조선소 살리기 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 겸 조선업

중노조연대 공동의장은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에 조선산업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노연은 모든 걸 열어놓고 조선산업의 미래와 정책과 일자리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조선노연 조합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 ‘중형조선소 살리기 희생방안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왔다”며 “중형조선소를 살리고 나아가 조선산업을 지키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28일 금속노조, 화섬연맹, 금속노련, 화학노련 주축 상설연대체 출범식 열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상설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아래 제조연대)’를 새로 출범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은 6월28일 14시 무렵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조연대 출범식과 함께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출범을 알리며 ▲제조발전 특별법, 재벌개혁 등 2대 입법 ▲산업정책 개입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 현안 공동대응 ▲산별노조 운동 강화사업 ▲제조노동자 총단결 사업 등 5대 핵심 사업을 제시하고 노정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가칭 제조산업협의회)을 요구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정책 대결에 힘쓸 것”이라며 “5백만 제조 노동자의 미래를 만들자”고 격려했다.

제조연대 대표자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업종과 지역, 상급단체를 뛰

어넘는 연대 정신을 확고하게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가칭 제조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재벌대기업 중심에서 노동 중심으로 변화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부문 공동투쟁체인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2015년 3월 출범해 박근혜 정권 노동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과 투쟁을 벌였다.

“교육은 심장이다. 노동교육 백년지대계를 준비하자”

금속노조 주관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캐나다 유니포, 브라질노총 교육 사례 발표와 강의 시연

민주노총이 캐나다 유니포(UNIFOR) 노조와 브라질노총(CUT) 교육부문 간부들을 초청해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교육연수원건립에 맞춰 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두

나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노동교육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주관했다. 포럼에 금속노조 지부, 지회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교육활동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 교육위원장인 함재규 부위원장은 “캐나다 유니포 노조는 간부들이 교육을 통해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단



결과 연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개인의 삶속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유니포 노조에서 참가한 팀 캐리 교육실장과 수 카터 교육국장은 조합원 31만여 명인 유니포 노조 조직현황을 소개하고 교육연수원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을 소개했다.

팀 캐리 교육실장은 “유니포 노조 교육연수원 교육에 연간 조합원과 가족 2천여명이 참여한다”며 “교육은 우리 심장이다. 단체교섭과 쟁의와 같은 실무교육과 더불어

비판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정치, 경제, 사회 식견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알렸다.

수 카터 교육국장은 “일반 교육은 지식을 일방 주입시키지만 유니포 교육연수원은 가르치지 않는다”며 “노동자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서 주제를 이끌어내 분석하

고 토론한 뒤 실행전략을 짜고 직접 실천에 옮기는 과정 전체가 교육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 둘째날에 유니포 노조와 브라질노총은 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하고 한국 노동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하고 토론했다. 유니포 노조와 브라질노총 교육부문 간부들은 포럼을 마친 뒤 6월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 지켜라”

하이디스지회 기자회견...국정자문위에 정리해고 해결 촉구 진정서 제출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가 문재인 정부에 하이디스 공장폐쇄,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아래 국정자문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회는 6월29일 서울 종로구 국정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하이디스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2년 전 약속을 지킬 때”라며 “정부가 나서서 하이디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국정자문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하이디스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공장폐쇄,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도록 하고 ▲대만 자본의

기술 먹튀 시도를 저지하며 ▲외투 자본의 먹튀 행각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6월7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중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6월1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만나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프로젝트 300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추진하고 있다.